

비대격동사가설과 ‘하다’동사의 수동형¹⁾

이건수

(경희대학교)

Lee, Keon Soo. 2000. Unaccusative Hypothesis and the Passivization of *Hata* verbs. *Linguistics* 8-1, 87-112. Impersonal Passives are allowed from initially unergative clauses but not from initially unaccusative clauses. This is one of the predictions that the Unaccusative Hypothesis(UH) articulates with the 1-Advancement Exclusiveness Law(1-AEX). However, *hata* verbs reveal an apparently exceptional phenomenon which might counter-exemplify the UH and/or the 1AEX with respect to the alternation between *-hata* and *-toyta*. Provided that *-toyta* is a passive form of *-hata*, unaccusative *hata* verbs seem to permit a passive clause whereas unergative *hata* verbs do not. This paper argues that the seemingly exceptional phenomenon to the prediction is not a real exception but a mere reflection of the passivization in the level of the matrix clause which is transitive and headed by the verb *hata*. This paper also claims that the *-hata/-toyta* alternation can be a syntactic diagnostic of unaccusativity with conjunction to the *hata* verbs in Korean. (Kyung Hee University)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하다’동사가 보이는 ‘-하다/-되다’ 교체현상의 통사적 원인을 찾아보려고 한다. ‘-하다’동사는 복문구조를 형성하며, ‘-되다’는 ‘-하다’의 수동형이고, 자동문에서의 ‘-하다/-되다’의 교체는 하위절 동사의 비대격성(unaccusativity)에 따라 결정됨을 보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동사 ‘하’는 소위 동사성 명사(verbal noun)라고 하는 어휘와 결합하여 타동사 또는 자동사를 형성한다. 한편, ‘-하다’는 ‘-되다’와 교체될 수 있는데 ‘-하다’동사의 자/타동성에 따라 흥미로운 양상을 보인다.

1. 본 논문은 호원대학교에서 열린 대한언어학회 2000년 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발표대회에서의 질문과 논평 그리고 익명의 심사자의 논평이 본 논문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며 감사를 드린다.

- (1) 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였다.
나. 사건이 조사되었다.
- (2) 가. 철수가 작업을 하였다.
나. *철수가 작업되었다.
- (3) 가. 물가가 하락하였다.
나. 물가가 하락되었다.

(1)과 같은 타동문에서 ‘-하다/-되다’ 교체는 자유로우나 자동문일 경우에는 (2)와 같이 ‘-되다’로 교체될 수 없는 경우와 (3)과 같이 ‘-되다’로 교체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타동문에서의 ‘-하다/-되다’의 교체는 전통적으로 ‘-되다’가 ‘-하다’의 수동형이라는 가정 하에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은 곧바로 “자동사도 수동형을 허용하는가?”라는 질문을 야기한다.

아래의 자료는 한층 더 흥미로운 질문을 야기한다.

- (4) ‘-하다/-되다’의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 동사성 명사들:
 - 가. 작업, 운동, 연설, 명상, 공상, 수영, 산책, 보행, 출발, 논쟁, 투쟁, 동의, 기도, 한탄, 절규, 굴복, 항복, 포복, 아침, 주저, 불평, 등등.
 - 나. 기침, 재채기, 딸꾹질, 트림, 구토, 배변, 통변, 호흡, 등등.
- (5) ‘-하다/-되다’의 교체를 허용하는 동사성 명사들:
 - 가. 연소, 하락, 침몰, 표류, 확산, 분출, 동요, 익사, 파열, 용해, 증발, 응고, 기화, 부패, 증가, 감소, 붕괴, 해산, 소멸, 질식, 파산, 등등.
 - 나. 조우, 발산, 발생, 기인, 유래, 귀착, 회전, 반전, 등등.
 - 다. 시작, 정지, 계속, 종료, 등등.
 - 라. 지속, 잔류, 정체, 등등.

Perlmutter & Postal (1984a)에 의하면²⁾, (4)는 비능격성(unergativity)을,

2. Perlmutter & Postal (1984a: 98-100)은 비능격동사와 비대격동사는 범언어적으로 의미에 의해 결정된다는 보편정렬가설(Universal Alignment Hypothesis)을 제안하고 두 유형의 동사를 구분하는 의미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Predicates determining initially unergative clauses:
 - a. Predicates describing willed or volitional acts
 - b. Certain involuntary bodily processes
- Predicates determining initially unaccusative clauses:

(5)는 비대격성을 갖는 예들이다.³⁾ Perlmutter (1978)와 Perlmutter & Postal (1984a)에 따르면 비능격동사는 비인칭수동문(impersonal passive)을 허용하나 비대격동사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인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는 비대격가설(Unaccusative Hypothesis)이 유효하지 않은가?” 아니면, “(3가)는 비인칭수동문과는 다른 유형의 구문인가?” 등의 질문을 야기하게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하다'와 '-되다'의 관계를 언급한 그간의 논의들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동사성 명사와 동사 '하'의 특성을 논의하고, '-하다'동사구문의 구조를 제안하고, '-하다/-되다'의 교체는 상위절에서의 수동화현상에 의한 것임을 보인다. 특히, 자동문에서의 '-하다/-되다' 교체현상은 비대격가설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다'동사에 관한 한 비대격성을 구분하는 통사적 진단법임을 제안한다. 4장과 5장에서는 제안된 분석에 대한 의견상 반례와 예측을 논의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본 장에서는 '-되다/-하다'를 수동관계로 보는 전통적 견해를 비롯하여 '하'와 '되'를 경동사(light verb)로 보는 견해, '되'를 인상조동사(raising auxiliary verb)로 보는 견해, '하'와 '되'를 병합술어(union predicate)로 보는 견해, '되'를 비대격표지(unaccusative marker)로 보는 견해를 살펴본다.

2.1 '-되다'는 '-하다'의 수동형인가?

타동문의 '-하다'가 '-되다'로 교체되면 자동문이 된다. 수동화는 타동문의 목적어가 자동문의 주어로 승진(advance)하는 통사현상이라는 면에서

-
- a. Predicates whose initial nuclear term is semantically a Patient
 - b. Predicates of existing and happening
 - c. Involuntary emission of stimuli that impinge on the senses
 - d. Aspectual predicates
 - e. Duratives

3. Rosen (1984: 53)은 특정 언어의 특정 동사마다 비능격성과 비대격성이 결정되어 있다는 소정렬가설(Little Alignment Hypothesis)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Perlmutter & Postal의 기준은 전체적인 경향을 포착하기에 충분할뿐더러 한국어에서의 구분도 대체로 그들의 기준에 부합되므로 보편정렬가설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되다’는 전통적으로 ‘-하다’의 수동형이라 간주되어 왔다. ‘-되다’가 행위자구(by phrase)와 공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 (6) 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였다.
- 나. 사건이 (경찰에 의해) 조사되었다.

그러나 ‘-되다’가 ‘-하다’의 수동형이라는 가정은 ‘-하다’가 자동문을 형성하는 경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어떤 언어에서 자동사가 수동문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비인칭수동문으로 아래의 네델란드어(Dutch)에서와 같이 비능격동사는 비인칭수동형을 허용하나 비대격동사는 비인칭수동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Perlmutter & Postal (1984a: 107)).

- (7) 가. Er wordts hier veel geskied.

‘It is skied here a lot.’

- (8) 가. Vele kinderen zijin in de rook gestikt.

‘Many children suffocated in the smoke.’

나. *Er werd door vele kinderen in de rook gestikt.

(9) ⁴⁵ 가.	P	1		나.	P	2	
	P	1	2		P	1	
	P	chô	1		P	1	2
	geskied	a lot	er		P	chô	1
					gestikt	vele kinderen	er

비능격동사는 (9가)에서처럼 최초층(initial stratum)에서 주어만 택하나 두 번째 층에서 허대명사(dummy pronoun)인 ‘er’가 목적어로 도입되어⁶⁾ 타동문을 형성하므로 수동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대격동사는 (9나)에서와

4. 문법관계구조와 문법관계의 변화는 관계망구조(relational network)를 이용하나 본 논문에서는 Bickford (1987)를 인용하여 문법관계변화만을 약식형태로 나타낸다.

5. 편의상 문법관계를 ‘주어’는 ‘1’로 (직접)목적어는 ‘2’로 표시한다.

6. 허대명사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언어 보편적 제약을 따른다.

Nuclear Dummy Law: (Perlmutter & Postal (1983c: 103))

If A is an arc whose head is a dummy nominal, A is a nuclear term arc.
nuclear term은 ‘1’, ‘2’로 허대명사의 최초문법관계는 개별문법에 따라 정해진다.

같이 최초층에서는 목적어만 택하나 '모든 기본절에는 최종주어(final subject)가 존재한다'는 범언어적 제약에 따라⁷⁾ 두 번째 층에서 최초목적어(initial object)가 최종주어로 승진하여 여전히 자동문을 유지한다. 세 번째 층에서 허대명사가 목적어로 도입되어 수동화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기본절에서 주어로의 승진은 한번만 허용된다'는 제약⁸⁾을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비능격동사의 수동화는 범언어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동사의 수동형이 가능하다면 그 동사는 비능격동사가 아니라 비대격동사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비능격동사의 수동형은 불가능한 반면에 비대격동사의 수동형은 허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되다'를 '-하다'의 수동형으로 가정하는 한 (2)와 (3)에서의 '-하다/-되다'의 교체 양상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남게 된다. 아니면, 타동문에서의 '-하다/-되다'의 교체는 수동화가 아닌 다른 통사현상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2.2 '하'와 '되'는 경동사인가?

통사 및 의미적으로 '하다'와 흡사한 양상을 보이는 일본어의 *suru* 'do'를 의미적으로 불완전하거나(thematically incomplete) 비어있는(semantically empty) 경동사로 분석한 Grimshaw & Mester (1988) 이후 '하'도 종종 경동사로 분석되어왔다. 경동사분석의 요점은 '하'가 동사성 명사와 복합체를 이루는데 '하'는 동사성 명사를 목적어로 하위범주화하고 격(Case)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의미적으로 비어있기 때문에 의미역(θ -role)은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논항전이(Argument Transfer)라는 어휘적 작용을 통하여 경동사 '하'가 동사성 명사의 의미역들을 옮겨 받아 의미역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동사분석은 '-하다'가 이루는 자동문의 설명에 문제가 있다.⁹⁾ 올바른 논항전이를 위해 Grimshaw & Mester (1988: 215)는 주어이외에 하나 이상의 논항이 전이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제시한다. 이는 하나의 논

7. **Final 1 Law:** (Perlmutter & Postal (1983c: 100))

Every basic clause contains a final subject.

8. **1-Advancement Exclusiveness Law:** (Perlmutter & Postal (1984a: 84))

The set of advancement to 1 in a single clause contains at most one member.

9. 경동사분석의 전반적인 문제는 Mastumoto (1996)와 Lee (1999a)를 참조하라.

항만 갖는 동사성 명사는 ‘하’와 공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능격동사이건 비대격동사이건 ‘-하’가 이루는 자동문은 분명히 문법적이다.¹⁰⁾

(10) 가. 칠수가 작업을 하였다.

나. 물가가 하락을 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Yoon (1991)과 채회락(1996)은 한국어의 경동사구문에서는 적어도 주어논항은 전이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제안한다. 이 수정제약은 (10)의 자동문도 합법적인 경동사구문으로 설명될 수 있게 만드는 듯 하다. 그러나 비능격동사의 논항은 최초주어(initial subject)인 동시에 최종주어이나 비대격동사의 논항은 최종주어인 것은 사실이나 최초목적어이다. 따라서, 비능격동사의 경우에는 ‘주어’라는 제약에 문제가 없지만 비대격동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최초주어를 말하는가? 아니면, 최종주어를 말하는가? 비대격동사는 최초주어를 갖지 못하므로 최종주어라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논항전이는 어휘적 작용이나 비대격이동(Unaccusative Movement)은 통사작용이므로 또 다른 이론적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어휘적 과정과 통사적 과정이 함께 또는 상호교차 적용될 수 있다는 무리한 가정 하에 경동사분석을 받아들인다 해도 비대격동사가 이루는 경동사구문의 설명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따른다. Grimshaw & Mester (1988: 225)는 논항의 올바른 전이를 위해서는 (11)과 같은 의미역위계(thematic hierarchy)도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11) (Agent/Source (Goal (Theme)))

Grimshaw & Mester에 의하면 논항전이는 의미역위계에 정해진 순서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목표논항(Goal)의 전이는 행위자논항(Agent)의 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대격동사에는 행위자논항이 없다. 그렇다면, 비대격동사는 경동사구문을 형성할 수 없다. 따라서, 경동사분석에서는 ((10가)의 문장과 더불어) (10나)의 문장은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예측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대격동사는 경동사구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외부논항(external argument)에 의미역을

10. 일본어에서의 이에 대한 논의는 Mastumoto (1996)을 참조하라.

부여하는 동사만 대격(ACCUSATIVE)을 부여한다는 Burzio의 일반화(Burzio 1986)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되다’의 경우에도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이는 ‘-하다’가 ‘-되다’와 교체되어도 동사성 명사의 논항구조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동사분석은 ‘-하다/-되다’의 관계는 고사하고 자동문의 경우 ‘-하다’와 ‘-되다’가 이루는 문장의 적형성 조차 설명할 수 없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2.3 ‘하’와 ‘되’는 인상조동사인가?

‘-하다/-되다’의 교체는 격조사의 대조를 동반한다. ‘-하다’를 선행하는 동사성 명사는 대격조사 ‘-을/-를’로, ‘-되다’를 선행하는 동사성 명사는 주격조사 ‘-이/-가’로 표지된다. 따라서, 자동문은 아래의 대조를 보인다.

- (12) 가. 물가가 하락을 하였다.
나. 물가가 하락이 되었다.
- (13) 가. 철수가 작업을 하였다.
나. *철수가 작업이 되었다.

‘-하다/-되다’의 교체와 더불어 격조사의 대조를 Choi (1988)는 관계문법(Relational Grammar)의 틀 안에서 선행하는 동사성 명사의 특성과 ‘하’와 ‘되’의 통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먼저 Choi (1988)에서 (12가,나)의 구조로 제안된 (14가,나)를 보자.

<p>(14) 가.</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2</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P</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chô</td> <td style="text-align: center;">P</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chô</td> <td style="text-align: center;">P</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P]</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P]</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물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하락</td> <td style="text-align: center;">하</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2		P						2	chô	P						1	chô	P						[2	P]							[1	P]							물가	하락	하					<p>나.</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2</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P</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chô</td> <td style="text-align: center;">P</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chô</td> <td style="text-align: center;">P</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P]</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P]</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물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하락</td> <td style="text-align: center;">되</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2		P						1	chô	P						1	chô	P						[2	P]							[1	P]							물가	하락	되				
	2		P																																																																																														
	2	chô	P																																																																																														
	1	chô	P																																																																																														
	[2	P]																																																																																															
	[1	P]																																																																																															
	물가	하락	하																																																																																														
	2		P																																																																																														
	1	chô	P																																																																																														
	1	chô	P																																																																																														
	[2	P]																																																																																															
	[1	P]																																																																																															
	물가	하락	되																																																																																														

(14가)에서 ‘하’는 인상조동사이고 ‘하락’은 ‘하’의 보문(complement)의 명사 서술어(nominal predicate)이다. 조동사 ‘하’는 [물가 하락]을 최초목적어로 택하고,¹¹⁾ 보문 자체가 비대격이기 때문에 보문의 최초목적어인 ‘물가’

는 보문의 최종주어로 승진한다(cf. Final 1 Law). 한편, 보문의 최종주어인 '물가'는 상위절의 목적어로 인상된(cf. Relational Succession Law)¹²⁾ 후 최종주어로 승진한다. 따라서, '물가'는 상위절에서의 최종주어로 주격을, 보문 자체는 'acting 2'로 대격을 부여받는다.¹³⁾ (14나)에서도 '되'는 인상조동사로 '하락'이 서술어인 보문을 최초목적어로 택한다. 마찬가지로, 보문 자체가 비대격성이기 때문에 보문의 최초목적어는 최종주어로 승진한다. 그러나 (14가)에서와는 달리 보문 자체가 먼저 최종주어로 승진한 후 보문의 최종주어인 '하락'이 인상된다. 그러한 이유로 '물가'는 상위문에서의 최종주어로 주격을, 보문 자체는 'acting 1'으로 주격을 부여받는다.

반면에, Choi는 (13가,나)의 구조로 (15가,나)를 제안한다.

(15) 가.	1	2	P	나.	2	P
	철수	작업	하		1	P
					1	chô
					[1	P]
					철수	작업
						되

Choi는 비능격 동사성 명사와 결합하는 '하'는 조동사가 아니라 본동사로 (13가)는 (15가)의 구조를 갖는 전형적인 타동문임을 주장한다. (15나)에서 '되'는 동사성 명사 '작업'이 서술어인 보문을 최초목적어로 택하며, 보문이 비능격성이기 때문에 '철수'가 보문의 최초주어이며 최종주어이다. 한편, 두 번째 층에서 보문 자체는 상위절의 최종주어로 승진하고 보문의 최종주어는 상위절의 최종주어로 인상된다. 결과적으로, '철수'는 상위절의 최종주어로, 보문 자체는 'acting 1'으로 주격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Choi (1988:

11. Perlmutter & Postal (1984a)과 Postal (1986)에 의하면 조동사는 범언어적으로 최초층에서 비대격동사이다.

12. 인상된 요소(ascendee)의 문법관계는 다음의 보편제약에 의해 결정된다.

Relational Succession Law: (Perlmutter & Postal (1983b))

An NP promoted by an ascension rule assumes the grammatical relation borne by the host out of which it ascends.

13. 'acting term'은 Perlmutter & Postal (1984b)의 용어로 어떤 명사가 *chômeur* 가 되기 전 마지막으로 지닌 문법관계가 '1', '2', '3' 중의 하나일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여러 언어에서 'acting 2'는 대격으로 표지되며(cf. Perlmutter & Postal (1984b), 한국어에서 'acting 1'은 주격으로 표지된다(cf. Choi (1988)).

187)는 ‘되’의 보문에서는 최초목적어만 인상될 수 있다는 제약을 제안하면서 (15나)에서 ‘칠수’는 보문에서의 최초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약을 위반하여 (13나)는 비문법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14가,나)를 다시 보자. (14가)에서는 보문의 최종주어가 인상되어 상위절에서 비대격승진을 하나 (14나)에서는 보문 자체가 비대격승진을 한 후 보문의 최종주어가 인상된다. 이는 인상과 비대격승진 어느 과정이 먼저 일어나는가는 관계없다는 말과 같다. 그러면 (14가,나) 대신에 (16가,나)도 (12가,나)의 구조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6) 가.	2	P		나.	2	P	
	1	P			2	chô P	
	1	chô P			1	chô P	
	[2	P]			[2	P]	
	[1	P]			[1	P]	
	물가	하락	하		물가	하락	되

(16가)에서는 보문이 비대격승진한 후 보문의 최종주어인 ‘물가’가 인상된 후 상위절의 최종주어가 되어 주격을, 보문 자체는 ‘acting 1’으로 주격을 부여받는다. (16나)에서는 비대격승진으로 최종주어가 된 ‘물가’가 인상된 후 상위절의 최종주어로 비대격승진하여 주격을, 보문 자체는 ‘acting 2’로 대격을 부여받는다. 뿐만 아니라, (16가,나)에서 ‘물가’는 보문의 최초목적어이므로 인상조동사에 관한 제약도 어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Choi의 분석에서는 아래의 예들이 문법적으로 예측됨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17) 가. *물가가 하락이 하였다.

나. *물가가 하락을 되었다.

Choi의 분석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Choi의 분석에서 비대격문의 ‘하’와 ‘되’는 인상조동사이다. 그러나 (18)은 비대격문의 ‘되’도 (19)의 타동문에서와 같이 수동을 나타내는 행위자구와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Choi (1988: 238-80) 자신도 (19)와 같은 타동문에서의 ‘하’는 본동사로, ‘-하다/-되다’의 교체는 능동과 수동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 (18) 가. 물가가 하락을 하였다.
 나. 물가가 (정부에 의해) 하락되었다.
- (19) 가. 경찰이 사건을 조사를 하였다.
 나. 사건이 (경찰에 의해) 조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Choi의 분석에서는 행위자구의 수의적 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상조동사 ‘하’와 ‘되’, 본동사 ‘하’와 ‘하’의 수동형 ‘되’를 따로 설정하여야 한다. 실제로, Choi 자신도 (13가)의 ‘하’를 본동사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임시방편적인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13가)의 ‘하’가 타동문을 형성하는 본동사라면 수동형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3가)의 수동형이라 생각되는 (20)은 비문법적이다.

- (20) *작업이 (철수에 의해) 되었다.

2.4 ‘하’와 ‘되’는 병합술어인가?

동사 ‘하’와 ‘되’에 선행하는 동사성 명사에 부착된 격표지는 강조표지 (emphatic marker)라 가정하는 한편 Davies & Mester (1988)의 술어병합 분석(Predicate Union)을 따라 Kim (1994)은 ‘하’와 ‘되’를 논항을 갖지 않는 병합술어(termless union predicate)라 주장한다. (21가,나)와 같은 비대격문의 구조로 제시된 (22가,나)를 살펴보자.

- (21) 가. 폭탄이 폭발을 하였다.
 나. 폭탄이 폭발이 되었다.

(22) 가.	2	P		나.	2	P
	1	P			2	chô P
	1	chô	P		1	chô P
	폭탄	폭발	하		폭탄	폭발 되

Kim의 분석에서 ‘폭발’은 최초층에서 목적어만 택하는 명사서술어이며 ‘하’와 ‘되’는 나중에 도입되는 서술어이다. (22가)는 최초목적어인 ‘폭탄’이 둘째 층에서 비대격승진을 하여 주어관계를 얻고 셋째 층에서 ‘하’가 도입되어 ‘폭발’과 병합됨을 보여준다. 이 경우 ‘폭탄’이 병합층(union stratum)

에서 최종주어로 주격을 부여받고 동사성 명사는 강조표지 ‘-을/-를’을 부여받아 (21가)의 문장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22나)에서는 둘째 층에서 ‘되’가 도입되어 이전의 서술어와 병합된 후 셋째 층에서 ‘폭탄’은 수동화에 의해 최종주어가 되어 주격을 부여받고 동사성 명사는 강조표지 ‘-이/가’를 부여받아 (21나)의 문장이 된다는 것이다.

Kim (1994)에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위의 구조를 원용하면 비능격 문에서 ‘-하다/-되다’의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23가,나)와 같은 비능격문의 구조는 (24가,나)와 같이 될 것이다.

(23) 가. 철수가 작업을 하였다.

나. *철수가 작업이 되었다.

(24) 가.	1	P		나.	1	P
	1	chô	P		1	chô
	철수	작업	하		철수	작업
						되

‘작업’은 비능격 서술어이므로 최초주어만 선택하고 ‘하’와 ‘되’는 다음 층에서 도입되어 이전의 서술어와 병합될 것이다. 따라서, (24가)에서처럼 ‘철수’는 병합층에서 최종주어로 주격을 부여받고 동사성 명사에는 강조표지 ‘-을/-를’이 부여되어 (23가)의 문장이 가능한 반면에 (24나)에서는 병합층이 자동층(intransitive stratum)으로 병합술어 ‘되’가 도입되어도 수동화는 일어날 수 없어 (23가)의 문장은 불가능하다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Kim의 분석에는 이론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Kim (1994: 111-2)은 아래와 같은 대조에 근거하여 (22나)에서 최초목적어인 ‘폭탄’이 수동화에 의해 최종주어가 됨을 주장하고 있다.

(25) 가. *폭탄이 순이에 의해 폭발하였다.

나. 폭탄이 순이에 의해 폭발되었다.

Kim은 (21가)에는 수동의 의미가 없을뿐더러 (25가)에서와 같이 행위자구와 함께 사용될 수 없으나 (21나)는 수동의 의미를 포함하며 (25나)에서처럼 행위자구와도 함께 나타날 수 있으므로 (21나)는 수동형이라는 것이다. 수동화는 주어와 목적어를 포함하는 타동층(transitive stratum)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cf. Perlmutter & Postal (1983a)) 목적어만을 포함하는 비

대격층(unaccusative stratum)에서의 통사현상인 비대격승진과는 다른 통사 현상이다. 따라서, (22나)에서는 수동화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Kim의 주장대로 (21나)가 수동문이라면, 2.1절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다른 언어들에서와는 달리 왜 한국어에서는 비대격문의 수동형은 허용되나 비능격문의 수동형은 허용되지 않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Kim의 분석은 격조사의 대조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동사성 명사에 부착된 격조사를 강조표지라 가정하는 Kim (1994: 102)은 강조표지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강조표지부여규칙을 제시한다.

(26) 가. A VN may bear an emphatic NOM marker, in case the heavy counterpart of the following union predicate is an intransitive verb.

나. A VN may bear an emphatic ACC marker, in case the heavy counterpart of the following union predicate is a transitive verb.

위의 규칙이 언급하는 바는 강조표지의 선택은 본동사로서의 ‘하’와 ‘되’의 자/타동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동사 ‘하’는 항상 타동사이고 ‘되’는 항상 자동사이므로 병합술어 ‘하’는 ‘-을/-를’을, 병합술어 ‘되’는 ‘-이/-가’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강조표지의 선택은 격표지부여 규칙에 의해 예측되므로 (26)의 규칙은 잉여적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동사성 명사가 나타나는 (27)과 같은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그러나 잉여적인 강조표지부여규칙(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27) 가. 정부가 양담배를 수입을 중지를 하였다.

나. 양담배가 수입이 중지가 되었다.

2.5 ‘되’는 비대격 표지인가?

Kang (1997)은 한국어에서 ‘-지’는 비대격표지이며, 수동문은 비대격절이고, ‘되’는 동사 ‘하’의 수동형인 ‘하-지’가 형태적으로 융합된 형태라는 가정하에 ‘-하다/-되다’의 교체현상을 설명한다.

- (28) 가. 경찰이 그 사건을 조사하였다.
 나. 그 사건이 (경찰에 의해) 조사되(=하 지)었다.
 (29) 가. 저 다리가 곧 붕괴할 것이다.
 나. 저 다리가 곧 붕괴되(=하 지)-르 것이다.

Kang에 의하면, (28가)는 타동문으로 '조사하다'의 수동형은 '조사하-지다'인데 형태구조(Morphological Structure) 단계에서 융합이 일어나 '조사되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29)와 같은 자동구문에서도 '-하다/-되다'의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는 비대격표지이고 수동문은 비대격이므로 '하다'의 수동형인 '되'는 비대격표지라는 것이다.

아울러, Kang (1997: 141)은 (29가)에서와 같이 비대격문에 비대격표지가 아닌 '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비대격표지인 '-지'의 출현이 수의적이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지'의 출현이 강제적이어서 (30)에서와 같이 '-되다'와만 나타나는 비대격동사들도 있다는 것이다.

- (30) 가. 철수가 홍콩에서 실종-되/*하-었다.
 나. 유실-되-/*하-, 침수-되-/*하-
 다. 피살-되-/*하-, 피선-되-/*하-

Kang (1997)에서의 주장은 '되'에 수동형과 비대격을 함께 표지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대격문에서의 '-하다/되다'의 교체현상은 비대격문의 수동화에 의한 것인 반면에 (Kang (1997)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비능격문에서 '-하다/되다'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비능격문에서의 수동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은 2.4절에서 살펴본 술어병합분석에서나 마찬가지로 왜 한국어에서는 언어보편적 현상과는 달리 비대격문의 수동형은 허용되는 반면에 비능격문의 수동형은 허용되지 않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Kang의 분석에는 몇 가지 문제가 더 있다. 첫째로, '되'는 정말로 '하-지'가 형태적으로 융합된 것인가? Kang (1997: 136)은 일본어에서 *suru*의 수동형인 *sare*는 *suru*와 수동형태소인 *rareru*가 융합된 것으로 '하-지'의 융합형이 '되'라는 가정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 한다.¹⁴⁾ 그러나 일본어의 경

14. 실제로 한국어에서 토착동사의 수동형은 '-어 지'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지'가

우 융합형이 융합된 성분들과 음성적으로 유사하나 '되'와 '하-지' 사이에서 음성적 유사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둘째로, '지'의 출현은 수의적이거나 어떤 경우에는 강제적이라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가? 셋째로, 타동문의 수동형의 '되'와 비대격문의 '되'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넷째로, '되'를 선행하는 동사성 명사에 부착되는 격조사는 무엇인가? 비대격표지도 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동사성 명사에 붙는 격조사는 격조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인가? 격조사가 아니라면, Kim (1994)에서와 같이 격조사부여 규칙이 아닌 다른 규칙을 설정하는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3. 제안: 복문적 분석

앞장에서는 '-하다/-되다' 교체현상을 설명하는 그간의 분석들의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그 분석들이 공유하는 가정은 동사성 명사의 범주는 명사로 해당구문은 단문이고 '하'와 '되'는 특수한 기능을 갖는 문법요소라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하/되'와 결합하는 동사성 명사의 범주는 동사로 하위절 동사이며 '하'와 '되'는 상위절 동사임을 논의한다. 아울러, '-되다'는 '-하다'의 수동형으로 자동문에서의 '-하다/-되다' 교체는 하위절 동사의 비대격성에 따라 결정되나 비대격동사가설의 예외 현상은 아님을 논의한다.

3.1 동사성명사의 범주

대부분의 '-하다'구문에 대한 논의는 동사성 명사가 명사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동사성 명사가 아래에서와 같이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전형적으로 명사구가 나타나는 통사적 위치에 나타날뿐더러 형용사나 소유격구에 의해 수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31) 가. 쉬운 공부가 없다.
나. 순이가 어려운 공부를 끝내었다.
- (32) 가. 철수의 작업이 매우 힘들었다.
나. 사람들이 주가의 하락을 걱정하였다.

비대격표지이고 '하'의 수동형이 '하-지'인데 '하-지'가 '되'로 융합된 것이기 때문에 '되'는 수동형과 비대격성을 함께 나타내는 표지라는 가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동사성 명사가 아래에서처럼 동사구 부사어(VP-adverb)에 의해 수식될 수 있다는 사실은 동사성 명사를 동사로 가정할 수도 있게 한다.¹⁵⁾

- (33) 가. 철수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나. 철수가 즐겁게 작업을 하였다.
 다. 물가가 빠르게 하락을 하였다.

그러면 왜 동사성 명사는 명사적 특성과 동사적 특성을 함께 보이는가? 동사성 명사는 어형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중국어에 기원을 둔 한자어라는 사실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중국어에서는 동사성 명사가 명사나 동사로 쓰인다. 이와 관련하여 B. Park (1981)과 채희락 (1996)은 동사성 명사가 명사로 차용되었다고 추측하나 Ahn (1991)과 K. Park (1992, 1995)은 통사적 환경에 따라 명사나 동사로 차용되었다고 추측한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를 따라 동사성 명사를 명사와 동사 두개의 어휘소(lexeme)로 가정하고 '-하다/-되다'구문에서의 동사성 명사는 동사임을 논의한다.

동사구 부사어에 의해 수식될 수 있다는 사실 이외도, BEGIN, TRY 등과 같은 이차적 개념(secondary concept)의 통사적 표현과 관련하여서도 동사성 명사가 동사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Dixon (1994: 134-5)은 *begin*, *try* 등과 같은 이차적 동사(secondary verb)는 일차적 동사(primary verb)에 파생접사(derivational affix)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일차적 동사를 포함하는 절을 보문으로 택하는 동사로 나타남을 관찰하고 있다. 아래 예를 보자.

- (34) 가. 순이가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을 하였다.
 나. 철수가 인터넷을 통해 직원 모으-기-를 시도하였다.
 위에서 명사화 어미(nominalizer)라고 하는 '-기'는 이차적 개념을 나타내

15. 익명의 심사자는 (33)에서 '열심히'가 '공부를 하다' 전체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공부를 하다'가 동사구이며 '공부'가 명사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아래의 예들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듯 하다.

i) ??철수가 영어를 즐거운 공부를 하였다.

ii) *철수가 영어를 즐거운 공부하였다.

'공부'가 명사라면 형용사에 의해 수식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형용사가 '공부를'을 수식하고 있는 (i)은 그리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니며, 목적어 '공부'의 대격표지가 생략된 (ii)는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위의 예들은 '공부'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는 ‘시작’, ‘시도’와 관련된 파생어미는 분명히 아니다. 그렇다면, ‘시작’과 ‘시도’는 보문절을 택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보문에 대격조사가 부착될 수 있음은 보문이 목적어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절을 목적어로 택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므로¹⁶⁾ ‘시작’과 ‘시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작’, ‘시도’는 동사성 명사가 나오는 위치에 있으므로 동사성 명사는 동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에서 진행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은 동사에 어미 ‘-는 중’을 첨가하는 것이다. ‘-는 중’은 동사에만 첨가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처럼 동사성 명사도 ‘-중’과 어울려 진행형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동사성 명사가 동사임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¹⁸⁾

(35) 가. 순이가 밥을 먹는 중이다.

나. *순이가 책상중이다.

(36) 가. 철수가 영어를 공부중이다.

나. 철수가 작업중이다.

다. 물가가 하락중이다.

동사성 명사는 형용사나 부사에 의해 수식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논의의 대상인 구문에서는 동사성 명사가 형용사에 의해 수식될 경우에는 비문 또는 비문에 가까우나 부사에 의해 수식될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문장

16. 이러한 점에서 ‘-음’, ‘-기’ 등은 보문자(complementizer)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며, 근자에는 보문자로 취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7. 드물기는 하나 ‘빨래’, ‘놀이’ 등과 같은 명사도 ‘-중’과 어울려 진행형을 형성한다. 또한, 동사에는 ‘-는 중’이 첨가되나 동사성 명사에는 ‘-중’이 첨가된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18. 익명의 심사자는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가 ‘공부하고 있다’에서는 가능하게 *공부고 있다’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면서 동사성 명사가 ‘중’과 결합하기 때문에 동사라는 논리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추측에 불과하지만, 동사성 명사가 보이는 이러한 차이는 ‘중’은 한자어이나 ‘-고 있다’는 한국어 어미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듯하다. 한자어가 대량으로 수입되어 사용되는 과정에서 한자어 동사는 특정의 의미가 없는 동사 ‘하’를 이용하여 한자어 동사를 한국어화하여 ‘-고 있다’와 쓰일 수 있게 된 반면에 ‘-는’을 첨가함으로써 한자어에서 진행을 나타내는 ‘중’을 한국어화하여 한국어 동사와 어울려 쓰일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기원과 쓰임이 다른 두 가지 진행형이 있다면, *공부고 있다’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동사성 명사가 동사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또한 논의의 대상인 구문에서 동사성 명사가 동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7) 가. 철수가 영어를 즐겁게/*즐거운 공부를 하였다.

나. 철수가 신속히/*?신속한 작업을 하였다.

다. 물가가 빨리/??빠른 하락을 하였다.

3.2 본동사로서의 '하'

논의중인 구문에서 '하'는 조동사가 아닌 본동사의 특성을 보임을 관찰할 수 있다.¹⁹⁾ 먼저, '하' 바로 앞에 동사구 부사어가 나타날 수 있다.

(38) 가. 철수가 영어를 공부를 즐겁게 하였다.

나. 철수가 작업을 즐겁게 하였다.

다. 물가가 하락을 급속히 하였다.

동사구 부사어는 범언어적으로 본동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므로 (38)은 '하'가 본동사임을 보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동사구 부사어는 동사성 명사와 '하'의 바로 앞에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²⁰⁾

(39) 가. 철수가 영어를 즐겁게 공부를 빨리 하였다.

나. 철수가 즐겁게 작업을 신속히 하였다.

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서서히 하였다.

물론, 두 개의 동사구 부사어가 같은 절에 나타나는 것을 막는 제약은 없다. 하지만, 두 개의 동사구 부사어가 상이한 위치에 나타난다면 두 개의 본동사를 가정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동사구 부사어가

19. '되'도 '하'와 동일한 특성을 보이나 편의상 '하'의 경우만 논의한다.

20. 익명의 심사자는 (39)의 예들이 비문법적이며 이 경우에도 동사성 명사 앞에 오는 부사들은 '공부/작업/하락하다'를 수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재확인 결과 화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39)의 예들이 문법적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39)가 극히 자연스러운 예들은 아닌 듯하나 이는 동사구 부사가 분리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인 듯 하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주 15를 참조하라.

동사성 명사와 ‘하’ 바로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동사성 명사와 ‘하’가 각각 본동사로 논의중인 구문의 구조가 복문임을 보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한편, 부정어와 관련하여서도 ‘하’가 본동사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한국어에서 부정어 ‘안’은 본동사 앞에만 위치할 수 있다. 그런데 부정어 ‘안’은 아래에서와 같이 ‘하’의 앞에 위치하여 부정형 문장을 형성한다. 이 또한 ‘하’가 본동사임을 보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 (40) 가. 철수가 영어를 공부를 안 하였다.
- 나. 철수가 작업을 안 하였다.
- 다. 물가가 하락을 안 하였다.

동사구 부사어와 관련하여 앞에서 동사성 명사도 본동사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부정어 ‘안’도 ‘하’뿐만 아니라 동사성 명사 앞에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아래의 예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 (41) 가. ?철수가 영어를 안 공부하였다.
- 나. ?철수가 안 작업하였다.
- 다. ?물가가 안 하락하였다.

개인적 차이는 있겠으나 위의 예들은 완전하게 비문법적이지도 문법적이지도 아닌 다소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추측에 불과하나, 동사성 명사는 한자어이고 ‘안’은 토착 동사에만 사용되는 부정어라는 사실에서 부자연성이 초래되는 듯하다. 어린 아이들의 언어에서 위와 같은 예들이 종종 발견된다거나 성인화자 중에도 위의 예들을 그리 어색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위의 예들의 부자연성이 통사적 이유에 기인하는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따라서, 위의 예들의 부자연성이 동사성 명사가 동사라는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반증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3.3 ‘-하다’동사구문의 구조

Lee (1988, 1991)는 앞 절에서 논의한 동사성 명사와 ‘하’의 특성에 근거하여 아래 (42)와 같은 타동문의 구조로 (43)과 같은 복문구조를 제안한다.

- (42) 가. 철수가 영어를 공부를 하였다.
 나. 영어가 (철수에 의해) 공부가 되었다.

(43) 가. $\frac{1 \quad 2 \quad P}{[1 \quad 2 \quad P]}$ 철수 영어 공부 하	나. $\frac{1 \quad 2 \quad P}{\text{chô} \quad 1 \quad P}$ $[1 \quad 2 \quad P]$ $[\text{chô} \quad 1 \quad P]$ 철수 영어 공부 되
---	--

(43가)에서 '하'는 본동사로 [철수 영어 공부]를 목적어로 택하고, '철수'는 상위절과 하위절의 주어관계를 함께 가지며, '영어'는 하위절 동사 '공부'의 목적어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철수'는 주격으로, '영어'는 대격으로, 상위절 동사의 목적어관계에 있는 보문은 대격으로 표지된다. 동사성 명사에 대격표지가 붙는 것은 동사가 마지막에 위치하는 한국어의 특성 때문이다.

반면에, (43나)는 최초층은 (43가)와 동일하나 하위절에 수동화가 적용되고 상위절의 목적어관계에 있는 보문이 수동화된 구조이다.²¹⁾ 따라서, '영어'와 보문이 모두 최종주어가 되어 '영어'와 '공부'에 주격표지가 부여된다.

(43)과 같은 복문구조는 (42)와 같은 타동문에서의 '-하다/-되다' 교체를 수동화현상으로 설명함은 물론 동사성 명사에 부착된 격표지의 교체도 함께 설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자동문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살펴보자. (44)의 문장들은 (45)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 (44) 가. 철수가 작업을 하였다.
 나. 물가가 하락을 하였다.

(45) 가. $\frac{1 \quad 2 \quad P}{[1 \quad P]}$ 철수 작업 하	나. $\frac{1 \quad 2 \quad P}{[2 \quad P]}$ $[1 \quad P]$ US ²²⁾ 물가 하락 하
--	--

(45가)에서 '작업'은 비능격동사로 '철수'는 최초주어이며 최종주어이고, '하'는 [철수 작업]을 목적어로 택한다. '철수'는 상위절과 하위절의 주어관

21. 하위절에 수동화가 적용되면 상위절에서도 반드시 수동화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하위절에만 수동화가 적용되면 동일주어조건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22. US는 비명시 주어(unspecified subject)를 말한다.

계를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철수'는 주격으로, 보문은 대격으로 표지된다. (45나)에서는 '하락'이 비대격동사로 '물가'는 비대격승진하여 하위절의 최종주어가 되며 '하'는 [물가 하락]을 목적어로 택한다. 따라서, '물가'는 주격으로, 보문은 대격으로 표지된다. 그러나 상위절 주어는 비명시 주어 (unspecified subject)로 격표지되지 못한다.

그러면, '되'와 관련하여 비능격문과 비대격문이 보이는 대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46)의 구조는 (47)과 같게 될 것이다.

(46) 가. *철수가 작업이 되었다.

나. 물가가 하락이 되었다.

(47) 가. 1 2 P <hr style="width: 100%; border: 0.5px solid black;"/> chô 1 P [1 P] 철수 작업 되	나. 1 2 P <hr style="width: 100%; border: 0.5px solid black;"/> chô 1 P [2 P] [1 P] US 물가 하락 되
---	--

(47가)에서 하위절은 자동문으로 수동화될 수 없지만 상위절의 최초층은 타동층이므로 수동화가 가능하다. 상위절의 목적어는 하위절 전체이며 상위절의 주어와 하위절의 주어가 동일하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수동화가 적용되면 하위절의 주어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수동화는 절경계를 넘어 적용될 수 없는 탓에 수동화가 적용된 (46가)의 예는 비문이 된다. 반면에, (47나)에서는 상위절이 타동절이고 하위절의 어떤 요소도 상위절에 공유되어 있지 않다. 상위절에서의 수동화로 하위절은 상위절의 주어관계를 얻어 주격으로 표지되고, 하위절의 최초목적어인 '물가'는 비대격승진을 통해 최종주어가 되어 주격으로 표지될 수 있어 (46나)는 문법적이다.

논의한 바와 같이 제안된 복문적 분석은 '-하다/-되다' 교체현상과 격표지 교체현상을 유기적으로 설명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논의 대상인 구문에서 왜 동사성 명사에 부착된 격표지가 수의적 특성을 보이는가에 대한 설명도 제공한다. 대체로 한국어에서 격표지는 쉽게 탈락된다. 주격표지 보다는 목적격표지가 더 쉽게 탈락된다. 특히, 주어나 목적어가 절일 경우 격표지가 탈락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런데 동사성 명사가 서술어인 절이 '하'의 목적어이거나 '되'의 주어이므로 동사성 명사에 부착된 격표지는 아주 쉽게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능격문에서는 수동형

이 허용되지 못하나 비대격문에서는 수동형이 허용되는 것은 비대격가설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동사 '하'가 형성하는 구조상의 특성으로 인한 규칙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복문적 분석은 더 나아가 자동문의 경우 구문의 구조적 특성상 수동화는 비대격문에서만 허용되므로 '-하다/-되다'의 교체 현상은 '-하다'동사에 관한 한 비대격성을 구분하는 통사적 진단법이 될 수 있음도 암시하고 있다.

끝으로 (47나)의 비명시주어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Levin & Hovav (1995: 82)는 의미적으로 비능격동사는 단일 사건을 나타내나 비대격동사는 중심사건(central event)과 중심사건을 야기하는 사건(causing event)을 함께 나타내므로 어휘의미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고 제안한다.

(48) 가. *laugh*: [x LAUGH]

나. *break*: [[x DO-SOMETHING] CAUSE [y BECOME BROKEN]]

(48나)는 비대격동사가 사역형의 의미구조를 가짐을 보여준다. 한편, Dixon (1994: 131-42)은 비대격동사는 시동자(initiator)나 통제자(controller)를 전제하는데 시동자나 통제자가 비대격동사의 보편적 주어(Universal Subject)라 한다. 그렇다면, (47나)는 Levin & Hovav와 Dixon의 주장과 상통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비대격문에 수동의 행위자구가 나타날 수 있음은 비명시 주어의 설정이 타당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의견상의 반례들

Perlmutter & Postal (1984a)에 의하면 'begin', 'continue' 등과 같이 상(aspect)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비대격동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시작' 등과 같이 상을 나타내는 동사성 명사는 '되'와는 자연스럽게 어울리나 '하'와 함께 나타날 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49) 가. ??노래가 시작하였다.

나. 노래가 시작되었다.

(50) 가. ?강연이 시작하였다.

나. 영화가 시작하였다.

다. 지진이 시작하였다.

(50)의 예들은 '시작하다'라는 동일한 동사를 갖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49가)와는 자연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Lee (1999b: 87)는 '노래', '강연'은 대체로 명백한 시동자나 통제자를 전제로 하는 반면에 '영화', '지진'은 시동자나 통제자를 반드시 전제하지는 않는 단어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전자의 단어들은 행위자 중심(agent-oriented)으로 사용되는 면이 강한 반면에 후자의 단어들은 그러한 성향이 비교적 약하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노래'나 '강연'과 같은 단어는 행위자가 뚜렷하지 않을 때에는 행위자가 명백히 드러날 필요가 없는 수동형으로 사용되는 것이 선호되는 듯 하다. 그렇다면, (49가)와 (50가)의 부자연성은 통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화용적인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실하다', '실종하다' 부류의 비대격동사들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51) 가. ??뚝이 유실하였다.
 나. ??철수가 실종하였다.
 (52) 가. 뚝이 유실되었다.
 나. 철수가 실종되었다.

'뚝'은 스스로 유실되지는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스스로의 의지로 실종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울러, '뚝'이 유실된 사항은 항상 '뚝'이 아닌 관찰자의 입장에서 말하여지는 내용이다. 실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설사, 누군가가 더 이상 남들과 어울려 살고 싶지 않아 홀연히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실종이 아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될 때에야 비로소 실종인 것이다. 그렇다면, '유실'이나 '실종'과 같은 단어는 시동자나 통제자가 있지만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항상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수동형으로 사용되는 것이 선호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하다'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통사적 원인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존재하다', '현존하다' 등의 존재동사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 (53) 가. 철수가 (십년전부터) 존재하였다.
 나. *철수가 (십년전부터) 존재되었다.

'존재하다'와 같은 동사들은 앞에서 논의한 부류의 동사들과는 달리 '-하다'와는 자연스럽게 어울리나 '-되다'와는 함께 사용되지 못한다. '존재하다'의 형태적 특성이 의미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은 아님을 보이는 한편 (54)에서와 같이 '존재하다'는 to exist의 의미는 가지지만 to reside의 의미는 갖지 못함을 보이면서, 윤재학 (1999: 92-3)은 '존재하다'를 형용사로 분석하여야 할 것을 주장한다.

(54) 가. 조카가 작년부터 우리 집에 있다.

나. *조카가 작년부터 우리 집에 존재한다/존재하다.

윤재학 (1999)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존재하다'가 형용사라면 '-하다/-되다'의 교체현상을 보이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존재하다'의 (추론에 의해, '존재하다'류의 동사들의) 경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Permlutter & Postal (1984a)에 의하면 영어의 '형용사'에 해당하는 표현은 모두 비대격동사이므로 '존재하다'가 형용사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해서 '존재하다'의 비대격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 절에서는 비대격동사 중 세 부류의 동사들이 '-하다/-되다'의 교체현상과 관련하여 예외적 현상을 보이는 듯하나 의미적/화용적 측면에서의 그리고 '존재하다'의 경우는 범주적 측면에서의 문제임을 보였다. 따라서, 그들은 제안된 분석에 대한 순수한 반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5. 이론적 예측

동사 '하'는 대체로 중국어에 기원을 둔 한자어인 동사성 명사와 결합하여 '-하다'동사를 형성한다. '하'가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은 '하'에는 특정한 행동이나 행위를 지칭하는 의미가 없는 탓에 차입된 외래어가 한국어의 통사체계에 사용되도록 하는 기능을 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인 듯 하다 (cf. Lee (1991)). 그렇다면, 다른 언어의 단어들도 차입되어도 '-하다/-되다'의 교체현상에 관하여 동일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은 영어의 타동사의 예이다. 타동사는 수동화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하다/-되다'의 교체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타동사의 수동분사는 '-되다'와만 결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래의 예들은 그러한 예측이 맞다는 것을 보여준다.

(55) 가. 적군이 도시를 디스트로이(destroy)-하였다.

나. 도시가 (적군에 의해) 디스트로이드(destroyed)-되/*하-었다.

다. 도시가 (적군에 의해) 디스트로이-되/*하-었다.

반면에, 차입된 동사가 비능격동사이면 '-하다/-되다' 교체현상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나 비대격동사인 경우에는 '-하다/-되다' 교체현상이 허용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래 예들은 그러한 예측들이 맞음을 보여준다.

(56) 가. 철수가 워크(work)-하/*되-었다.

나. 인구가 인크리즈(increase)-하/되-었다.

이와 같이 새로이 차입된 동사들도 동사성 명사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은 본 논문에서의 가정들과 제안된 분석이 옳바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동사성 명사와 동사 '하'가 형성하는 '-하다'동사구문에서의 '-하다/-되다' 교체현상과 격표지 교체현상은 '하'를 상위절 본동사로 동사성 명사를 하위절 본동사로 가정함으로써 제약이나 임시방편적인 규칙의 설정 없이도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는 동사성 명사와 결합하여 복문구조를 형성한다. 둘째, '-하다/-되다'의 교체는 '-하다'동사가 이루는 복문구조에서 상위절에 적용된 수동규칙의 결과이다. 셋째, '-하다/-되다' 교체에 따른 격표지 교체현상은 타동사인 '하'와 자동사인 '되'에 의한 격표지부여 현상일 뿐이다. 넷째, 수동형이 비능격문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나 비대격문에서 허용되는 것은 비대격가설의 예외가 아니라 '-하다'동사구문의 구조적 특성과 수동화가 빚어내는 규칙적 현상이다. 다섯째, 자동문의 경우 '-하다/-되다'의 교체현상은 '-하다'동사와 관련하여 비대격성을 구분하는 통사적 진단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본 논문이 이론적 측면에서 암시하는 바는 앞으로 차입되는 동사들이 있다면 그 동사들의 타동성, 비능격성, 비대격성에 따라 '-하다/-되다'의 교체양상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 윤재학. 1999. “‘존재 동사’에 관하여”, 언어, 24-1. 87-121.
- 채희락. 1996. “‘하-’의 특성과 경술어구문”, 어학연구, 32-3. 409-476.
- Ahn, Hee-Don. 1991. *Light Verbs, VP-movement, Negation and Clausal Architecture in Korean and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SUNY at Buffalo.
- Bickford, A. 1987. *Universal Constraints on Relationally Complex Claus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 Burzio, L. 1986. *Italian Syntax*. Dordrecht: Reidel.
- Choi, Young-Seok. 1988. *A Study of Ascension Constructions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Davies, D. and C. Rosen. 1988. “Unions as Multi-predicate Clauses”, *Language* 64, 52-88.
- Dixon, R. 1994 *Ergativ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imshaw, J. and A. Mester. 1988. “Light Verbs and θ -Marking”, *Linguistic Inquiry* 19, 205-232.
- Kang, Sun-Young. 1997. “Unaccusative Verbs in Korean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Verbs *ci-* and *toy-*”,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7, 115-152.
- Kim, Mi-Kyung. 1994. “Predicate Union in Korean Light Verb Constructions”, *Linguistic Journal of Korea* 19: 87-115.
- Levin, B. & M. R. Hovav. 1995.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 Cambridge: The MIT Press.
- Lee, Keon Soo. 1988 “Biclausal Analysis of the So-called Double Object Construction in Korean”, *Korean Linguistics* 6, 69-108.
- _____. 1991. *Multiple Accusative Constructions in Korean and the Stratal Uniqueness Law*.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_____. 1999a. “Is *Ha* Really Light?”,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16, 353-382.
- _____. 1999b. “*Sicak-ha-ta* as an Ergative Verb”, *Linguistics* 7.2, 77-100.
- Matsumoto, Y. 1996. “A Syntactic Account of Light Verb Phenomena in Japanes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5, 107-149.
- Park, Byung-soo. 1981.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s in Korean”, *Linguistic Journal of Korea* 6, 91-113.
- Park, Kabyong. 1992. *Light Verb Constructions in Korean and Japanes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_____. 1995. "Verbal Nouns and Do-Insertio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5, 319-58.
- Perlmutter, D. 1978. "Impersonal Passives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BLS* 4, 157-189.
- Perlmutter, D. & P. Postal. 1983a. "Toward a Universal Characterization of Passivization", in D. Perlmutter ed.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1, 3-29.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3b. "The Relational Succession Law", in D. Perlmutter ed.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1, 30-8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3c. "Some Proposed Laws of Basic Clause Structure", in Perlmutter ed.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1, 81-128.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4a. "The 1-Advancement Exclusiveness Law", in D. Perlmutter & C. Rosen eds.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2, 81-125.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4b. "Impersonal Passives and Some Relational Laws", in Perlmutter D. and C. Rosen eds.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2, 126-17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stal, P. 1986. *Studies of Passive Claus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Rosen, C. 1984. "The Interface between Semantic Roles and Initial Grammatical Relations", in Perlmutter D. and Rosen, C. eds.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2, 38-77.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Press.
- Yoon, James H. S. (1991). "Theta Operations and the Syntax of Multiple Complement Constructions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4, 433-445.

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번지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영어학과
E-mail: kslee@nms.kyunghee.ac.kr
Fax: +82-031-204-8112